PRESS RELEASE 배포일자: 22.02.11

알리코제약, 공장 증축 자금 위한 100억 규모 사모 전환사채 발행

▶ 진천 공장 증축 자금 위한 CB 발행

▶ 의료기기와 여성건강관리 신사업 통해 시장지배력 확대

<2022-02-11> 전문의약품 제조기업 알리코제약이 공장 증축 자금을 위해 100억 원 규모의 무보증 이권부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11일 공시했다.

사채의 만기이자율은 1.0%이며 표면이자율은 0.0%이다. 전환가액은 7802원이며 전환비율은 100%, 전환사채 만기일은 2025년 02월 18일이다. 전환에 따라 발행되는 주식 수는 1,281,722주로 이는 주식 총 수(15,327,021주)의 8.36%다.

조달한 자금은 의약품 생산공장인 진천 공장 증축에 사용할 예정이다. 회사 관계자는 증축 후 연구시설과 포장라인을 확대하고 대형생산라인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알리코제약은 2018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전문의약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기업이다. ETC를 중심으로 매출 안정성을 확보했고, 의료기기와 여성건강관리 신사업을 통해 시장지배력 확대를 준비 중이다.